

북한 최고지도부의 '24년 3~5월 공개활동 분석

Online Series

2024. 06. 07. | CO 24-40

김 갑 식(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장 철 운(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본 연구진은 북한정세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차원에서 북한 최고지도부, 즉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공개활동 동향을 3개월 단위로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북한 최고지도부의 공개활동을 분석하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2024년 3~5월 김정은을 비롯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공개활동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이를 지난 3개년 동기간과 비교해 2024년에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한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공개활동에는 해당 인물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인물이 주재한 활동만을 포함시켰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최근 3개월 공개활동 ... 이전 3개년 대비 45% 증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 즉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2024년 3~5월 총 57건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전 3개년 동기간 평균 공개활동 횟수(39.3건)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김정은과 최룡해의 공개활동이 이전 3개년 동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김덕훈의 공개활동은 감소했다. 북한 최고지도부의 최근 3개월 공개활동이 증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 본격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직전 3개월(2023.12.~2024.2.) 공개활동 역시 코로나19 엔데믹 본격화로 이전 3개년 동기간에 비해 50% 증가했다.

〈표 1〉 북한 최고지도부의 공개활동 동향: 2021년 이후 매년 3~5월

구 분	김정은	김덕훈	최룡해	조용원	계
2021.3~5월	15건	15건	4건	1건	35건
2022.3~5월	33건	11건	3건	0건	47건
2023.3~5월	14건	15건	5건	1건	35건
3개년 평균	20.7건	13.7건	4.0건	0.7건	39.3건
2024.3~5월	33건	11건	13건	0건	57건
3개년 평균 대비 증감율	+59%	-20%	+225%	-100%	+45%

자료: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김정은, 군사분야 공개활동 대폭 증가 … 대남정책 전환 영향

김정은의 2024년 3~5월 공개활동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 5건, 군사 19건, 경제 4건, 기타 5건 등 총 33건으로 나타난다. 이를 이전 3개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군사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때문으로 보인다.¹⁾ 김정은은 대남정책 전환을 결정한 2023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후 미사일 발사 및 군수공장 현지지도, 군 격려 활동뿐 아니라 2024년 3~5월에는 각종 훈련 지도 및 참관을 6회나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서부지구 군부대 실동훈련 지도(3.6), 대연합부대 포사격 훈련 지도(3.7), 전차 대연합부대 대항훈련경기 지도(3.13), 항공육전병 부대 훈련 지도(3.15), 서부지구 포병부대(600mm 방사포 배치) 사격훈련 지도(3.18),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지도(4.22), 600mm 방사포 위력시위사격 지도(5.31 보도) 등이다. 특히, 북한군이 동계훈련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알려진 2024년 3월에 김정은의 각종 훈련 지도 및 참관이 5회나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김정은의 경제분야 및 정치분야 공개활동도 이전 3개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했다. 경제분야 공개활동은 김정은이 2024년 1월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이전부터 추진하던 강동종합은실과 평양 화성지구 살림집 및 전위거리 건설 준공과 관련된 것이다. 정치분야 공개활동 중에서 눈에 띄는 사안은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와 관련한 활동이 2024년 3~5월에만 세 차례나 이뤄졌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현장 현지지도(3.31), 준공식 참석(5.21), 건설 기여자 사진촬영(5.22) 등의 공개활동을 벌였다. 특히, 김정은은 2024년 6월 1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서 기념사를

1) 홍민, “김정은의 ‘대한민국 주적’ 규정 및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 분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05 (2024.1.11.), pp. 5~6 등 참고.

한 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부터 당성, 혁명성 단련의 용광로인 당학교에서 정기적인 재교육을 거쳐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 수양하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부단히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노동당 고위간부들의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²⁾ 이에 앞서 김정은은 12년 만에 개최된 제5차 전국분주소장 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5.5)도 했다. 이러한 김정은의 행보는 북한이 2024년 들어 다양한 대내외 정책 변화를 추진하며 자칫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노동당을 중심으로 다잡고, 공권력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체제 이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2〉 김정은의 분야별 공개활동 동향: 2021년 이후 매년 3~5월

구 분	정치	군사	경제	기타	계
2021.3~5월	5건	1건	4건	5건	15건
2022.3~5월	7건	8건	4건	14건	33건
2023.3~5월	1건	11건	1건	1건	14건
3개년 평균	4.3건	6.7건	3.0건	6.7건	20.7건
2024.3~5월	5건	19건	4건	5건	33건
3개년 평균 대비 증감율	+16%	+184%	+33%	-25%	+59%

자료: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김덕훈, 5월 중·하순 단독 공개활동 전무 … 최룡해, 외교 활동 증가

김정은을 제외한 북한의 최고지도부, 즉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는 김덕훈과 최룡해, 조용원의 최근 3개월간 단독 공개활동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지는 사항은 내각 총리인 김덕훈의 공개활동이 2024년 5월 7일(보도) 이후 동월 말까지 전무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김덕훈은 2024년 5월 8일 새벽 김정은 등과 함께 김기남의 시신을 참배했고, 다음날에는 영결식에 참석했다. 또한 김덕훈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5.21)과 김정은이 참석·참관하는 가운데 2024년 6월 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및 첫 강의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덕훈의 2021~2024년 5월 단독 공개활동을 살펴보면, 2021년 5회, 2022년 2회, 2023년 5회, 2024년 2회로 각각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24년 5월 7일(보도) 이후부터 동월 말까지 김덕훈의 단독 공개활동 전무가 그다지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2) 『로동신문』, 2024.6.2.

그렇지만 김정은이 2024년 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새롭게 제시한 이후 김덕훈은 이른바 ‘북한 경제의 사령탑’으로서 각지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꾸준하게 실태를 점검해왔다. 또한 농번기인 매년 봄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영농 상황을 내각 총리가 직접 이곳저곳 현장을 다니며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은 김정은과 조용원, 최룡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5월 24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덕훈이 2024년 5월 중·하순 단독 공개활동을 하지 않은 배경과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마냥 무시할만한 대목이라고 예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표 3> 김덕훈·최룡해·조용원의 공개활동 세부 동향: 2021년 이후 매년 3~5월

구분	김덕훈			최룡해			조용원			계	
	경제	기타	소계	정치	경제	기타	소계	정치	경제		소계
2021.3~5월	15건	0건	15건	2건	2건	0건	4건	1건	0건	1건	20건
2022.3~5월	11건	0건	11건	1건	2건	0건	3건	0건	0건	0건	14건
2023.3~5월	14건	1건	15건	1건	2건	2건	5건	1건	0건	1건	21건
3개년 평균	13.3건	0.3건	13.7건	1.3건	2건	0.7건	4건	0.7건	0건	0.7건	18.3건
2024.3~5월	8건	3건	11건	0건	2건	11건	13건	0건	0건	0건	24건
3개년 평균 대비 증감율	-62%	+900%	-20%	-100%	0%	+1,471%	+225%	-100%	-	-100%	+31%

자료: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다음으로 최룡해의 2024년 3~5월 공개활동이 대폭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전 3개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기타 분야의 공개활동이 11건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3~5월 국제부녀절 기념행사 2회, 북한 ‘인민혁명군’ 창설 관련 행사 2회 등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활동뿐 아니라 방북한 중국의 당 및 정부 대표단과 관련한 외교활동만 4건 수행했다. 이 가운데 동평양대극장에서 4월 12일 진행된 이른바 ‘중북(조중) 친선의 해’ 개막식에서 최룡해가 북한을 대표해 연설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고 있는 직책 등을 고려했을 때, 조용원의 단독 공개활동이 2024년 3~5월 없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로 북한 최고지도부, 즉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단독 공개활동이 많은 김정은과 김덕훈, 최룡해의 공개활동 동향을 6개월 범위로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의 최근 6개월간 공개활동은 이전 3개년 동기간에 비해 44.5% 증가했으며, 정치·기타 분야가 감소한 반면 군사·경제 분야 공개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대남정책 전환과 지방발전 20×10 정책 등 새로운 대내외 정책 추진 영향으로 보인다. 김덕훈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공개활동 횟수가 이전 3개년과 대동소이하하며, 최룡해는 외교 등 기타 분야 공개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김정은·김덕훈·최룡해 공개활동 세부 동향: 2020년 이후 매년 12월~차년 5월

(단위: 건)

구 분	김정은					김덕훈			최룡해			
	정치	군사	경제	기타	계	경제	기타	소계	정치	경제	기타	소계
2020.12~2021.5	18건	3	4	17	42	21	0	21	4	2	0	6
2021.12~2022.5	16건	12	7	20	55	19	1	20	5	4	1	10
2022.12~2023.5	9건	16	4	7	36	21	1	22	4	3	2	9
3개년 평균	14.3	10.3	5	14.7	44.3	20.3	0.7	21	4.3	3	1	8.3
2023.12~2024.5	14	30	9	11	64	20	4	24	3	4	14	21
3개년 평균 대비 증감율(%)	-2	+191	+80	-25	+44	-1	+471	+14	-30	+33	+1,300	+153

자료: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북한 최고지도부의 향후 공개활동 방향은 2024년 6월 하순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은은 2024년 5월 24일 개최한 당 중앙위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에서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3.12)가 결정한 올해 국가사업 방향과 제반 과업들의 성과적 집행을 위해 상반기도 사업의 실태를 중간 총화하며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6월 하순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은은 당 중앙위 제8기 제20차 정치국 회의에서 “당 및 국가 사업에서 나서는 기타 중요 문제들도 토의”했으며 “최근 조성되고 있는 군사정세에 관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청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군대의 당면한 군사활동 과업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³⁾

이로 미뤄 오는 6월 하순 개최 예정인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이후 지시한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이 2024년 상반기에 어떻게 수행됐는지를 정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3) 『조선중앙통신』, 2024.5.25.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지시한 대남정책 전환과 2024년 1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시한 헌법 개정 관련 사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수 개월을 지나며 헌법 개정과 관련한 북한의 내부적인 준비가 일정하게 마무리됐다면 당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이후 최고인민회의 등을 개최해 개정 헌법을 전격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자의적으로 획정한 이른바 ‘국경선’, 특히 서해 5도 인근 지역 등의 사수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정은이 최전선 지역 방문 등과 같은 군사분야 공개활동을 하반기에 더욱 빈번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 5월 중하순 단독 공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김덕훈이 향후 어떠한 공개활동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로동신문』이 2024년 6월 2일 보도한 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의 다른 고위 간부들이 웃으며 박수칠 때, 김덕훈만 다른 표정을 하고 있으며, 다른 고위 간부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장면에서는 다소 초췌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룡해의 향후 공개활동 행보 역시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코로나 19 엔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다양한 수준에서 각종 외교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전개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미연대’를 확장·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과 함께 북한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룡해의 향후 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을 ‘중북(조중) 친선의 해’로 설정하고, 지난 4월 평양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교 75주년인 10월 6일을 전후해 중국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될 경우, 최룡해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